

# 장소정체성 요소로서의 공공예술 활용이 문화마을의 경관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중일 3국 사례 비교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Public Art Utilization as a Place Identity Factor on Landscape Elements of Cultural Villages

Comparative case study of Korea, China and Japan

주 저 자 : 이 연 (Li, Yan)

동명대학교 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교 신 저 자 : 정원준 (Chung, Won Jun)

동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wjchung@tu.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3.2.304>

접수일 2023. 5. 24. / 심사완료일 2023. 6. 3. / 게재확정일 2023. 6. 12. / 게재일 2023. 6. 30.

## Abstract

In order to identify the role of public art and landscape planning in the Regional Cultural Area as part of the cultural regene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analyzed the placeness and sense of place of these regions, focusing on the cas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first analysis qualitatively analyzed the history and locality of each region. The framework of the second quantitative analysis is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cultural regeneration strategy, the function of public art, and the concept of landscape elements, and uses adjectives of landscape status with a specific generation in China, that is, millennials in their 20s and 30s as parameters.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1st and 2nd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each case exhibited a place-linked, place-dependent, place-dominant public art piece, and had a sense of place with mediating, experiential, and symbolic shared values. Traditional decorative public art form was the main form, but partly participation and intervention, and new genre public art form were shown. The sense of place perceived by the subjects was normally distributed with an average median value of 3 or higher on a Likert 5-point scale, and the difference was not large. However, among the landscape elements, there was a difference in systematicity, continuity, convenience, and originality, and a cross-section of the subjects' unconscious cognitive process could be confirmed.

## Keyword

Regional Cultural Area(문화마을), Public Art(공공예술), Place Identity(장소정체성)

## 요약

지역 사회 문화적 재생의 일환으로써 문화마을의 공공예술과 경관요소 디자인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장소성과 장소감을 분석하였다. 1차 분석은 각 지역의 역사와 지역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2차 정량적 분석의 틀은 문화적 재생전략과 공공예술의 기능 그리고 경관 요소의 개념들을 상관분석한 것으로, 중국의 특정 세대 즉, 20대 30대 밀레니얼 세대를 매개변수로 하여 경관 상태 형용사를 활용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1, 2차 분석결과, 각각의 사례들은 각기, 장소연계, 장소의존, 장소지배적 공공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매개적, 체험적, 상징적 공유가치를 지닌 장소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통적인 장식적 공공예술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부분적으로 참여와 개입, 뉴 장르 공공 예술 등의 형태를 보였다. 피험자들이 인지하는 장소감은 리커트 5점 척도 가운데 평균 중앙값 3 이상의 정규분포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경관 요소 가운데 체계성과 연속성, 편리성, 독창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피험자들의 비의식적 인지과정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이론적 배경

- 2-1. 문화마을의 개념 정의

- 2-2. 문화마을의 공간 특성

- 2-3. 문화마을의 공공예술

- 2-4. 문화마을의 경관요소디자인의 개념 정의

- 2-5. 장소 정체성의 개념

### 3. 사례 분석

- 3-1. 분석 방법

- 3-2. 1차 분석
- 3-3. 2차 분석
- 3-4. 종합

## 4.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마을에서 공공예술과 경관요소 디자인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있다. 문화마을은 공공 공간 디자인의 한 축이며 각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중요한 측면을 내포하는가 하면 도시 또는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예술을 포함한 경관요소 디자인은 문화마을의 심미적 매력과 문화적 중요성을 일깨우고 향상시켜 방문객과 지역민 모두에게 그 장소를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공공예술과 경관요소 디자인이 어떻게 문화마을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공예술과 경관요소 디자인이 문화마을의 장소정체성 형성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여 대안적 공공 공간 디자인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 되었다. 더불어 지난 몇 십 년 동안 점점 많은 수의 디자이너와 이론가, 심리학자가 인지 차원의 공공 공간 경험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화마을의 공공예술과 경관과의 상관성에 관한 개개인의 체화된 경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sup>1)</sup>

### 1-2. 연구의 방법 및 주안점

본 연구는 문화적 재생의 일환인 문화마을의 공공예술 및 경관요소 디자인 그리고 장소정체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한 문화마을의 공간 특성, 공공예술의 개념, 경관의 개념 등을 종합한 분석의 틀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문화적 재생전략을 크게 기능과 상징으로 나누어 전략별 특성을 수렴한다. 공공예술의 기능을 실용적, 공간조절, 미적 기능으로 세분화하고 경관요소를 크게 편리/편안, 체계화된 구조, 시각 및 기능적 연속성, 독특한 정체성 조성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분석 요소들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경관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상대서술 경관 형용사

19가지를 추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한-중-일 3국의 근현대 역사를 품고 있고 문화적 재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마을 선행사례를 대입하고 분석하여 장소정체성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각 지역이 품고 있는 장소성에 관한 연구자의 1차 정성적 분석과 피험자인 중국의 청년층의 장소감에 대한 2차 정량적 분석 두 가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문화마을에서 공공예술과 경관요소 디자인의 상관성 및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 2. 이론적 배경

### 2-1. 문화마을의 개념 정의

인간에 의해 생성된 장소는 진화하며, 소멸하고 재 생성 되기 때문에 흔히들 도시를 비롯하여 소규모의 단위인 군락까지 유기적인 생명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발전되며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그 장소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고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 가운데 역사와 예술을 비롯한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유무형의 대상을 활용한 도시 재생을 문화적 재생이라 일컫는데, ‘문화마을’ 조성 또한 ‘문화적 재생’의 한 일환이다.<sup>2)</sup>

문화적 재생은 기존 장소의 개선과 발전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는 전략을 펴으로써 지역 정책의 핵심이 되어오고 있다. 역사와 문화는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지역민이나 방문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가 경제적인 요소와 긴밀하게 작용할 때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며, 특정 장소의 장소성과 공유가치를 높일 수 있다. 즉, 역사와 문화가 품고 있는 촉매 기능과 대외적 흡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1) 세라 W. 골드헤이건 지음, 윤재원 옮김, <공간혁명>, 다산북스, 2019, pp.15-50

2) 이학모, 문화적 재생을 위한 장소 만들기 연구, 인문 사회과학 연구, 2022, 5, Vol.32, No.5 p.306.

적 기능을 재활성화하고 경쟁력도 재고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지역의 개성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는 고유의 도시이미지 및 장소정체성을 형성하고, 고용 창출, 관광객 유치, 투자유치로 인한 소득증대 등 긍정적인 경제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sup>3)</sup>

문화적 재생의 조성전략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크게 기능적인 방법과 상징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각각의 방법은 하위개념으로 나뉘면서 조성전략이 구체화되고 각각의 특성을 다르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적 재생의 조성전략 및 특성

<출처: 김미영, 2010 보완>

문화적 재생	기능			상징		
	교류	편리	환경	상징	문화	심미
조성 전략	오픈스페이스, 인터랙션요소, 휴게공간 조성 등	도로 및 가로 시설 정비, 사인시스템, 정보, 자동용 공간 등	녹지공간 조성, 청결한 환경 조성 등	거리 테마 관련 조형물, 각종 공공예술	역사 문화 보호 및 브랜드화, 축제/이벤트, 등 특색 활동 공간 조성	거리 시설물 디자인 개선, 광고 사인물 개선, 건축물 파사드 개선 등
특성	유회	가능	쾌적	차별		심미

## 2-2. 문화마을의 공간 특성

문화마을 공공 공간디자인 계획 및 조성에 있어 공간 특성과 관련한 공유가치의 개념 정립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무형의 특성을 가진 공유가치들은 크게 4가지로 매개적 가치, 실용적 가치, 체험적 가치, 상징적 가치로 요약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가치들은 각각의 개념과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역사 축적, 공공예술, 특색활동, 건축양식, 자연경관, 편의시설 등 내적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유가치들은 개

3) 김미영, 문정민, 도시 재생 관점에서 문화의 거리 공간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0. 10, Vol.19, No.6, p162

4) 우커스 외 2명, 역사 문화거리 공공디자인의 공유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8, Vol.16, No.5, p.259.

별적으로 역사 문화거리의 공간 특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된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문화마을의 공유가치 개념과 특성 및 내적 구성요소 요약 <출처:우커스 2021 보완>

공유 가치	개념	특성	내적 구성요소
매개적 가치	공동 참여의 공간이나 공공시설 제공 -> 이용자 교류 지향	공공성 교류성 사회성 참여성 등	역사축적 공공예술 특색활동 건축양식 등
실용적 가치	편리한 접근성 및 공간 기능성 높임 -> 장소의 효율성 고취	접근성 개방성 사용성 기능성 등	자연경관 여행등산 편의시설 등
체험적 가치	차별화된 장소성, 경험 제공 -> 다양한 공간각적 경험 제공 지향	상업성 이벤트성 등	공공예술 특색활동 먹거리, 상품 등 상업적요인
상징적 가치	독창적 지역성-> 지역 역사와 문화에 내재된 의미 지향	문화성 역사성 지역성 추상성 등	역사축적 건축양식 공공예술 등

## 2-3. 문화마을의 공공예술

공공예술의 개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이를 사전적 의미해석으로 정리하면, 먼저, 우리말샘<sup>5)</sup>에서 거리, 공원, 광장 따위의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에 '전시하거나 설치하는 미술로 정의된다. 세계 미술 용어사전<sup>6)</sup>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되고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미술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두산백과<sup>7)</sup>에서는 대중들을 위한 미술을 뜻하는 용어로 분류되어 있으며, 시사상식사전<sup>8)</sup>에는 공공의 장소에 놓이는 미술로도 정의되어 있다. 문화관광부<sup>9)</sup>에서는 공공적 성격, 즉 공공성을 띤 미술이라는 개념으로 공공예술을 정의하는데 공공성의 성격에 따라

5) 국립국어학원 참조(<https://opendict.korean.go.kr/main>)

6) <https://terms.naver.com> 참조

7) <https://terms.naver.com> 참조

8) <https://terms.naver.com> 참조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2013, p.13.

공공예술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한국문화정책개발원<sup>10)</sup>의 연구에 따라 미술관이나 화랑같은 제한된 공간에 놓여있던 미술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어오기 위한 노력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 1). 공공예술의 의미와 특징

공공예술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의 변화를 겪으며 발전하고 있다. 20세기 초중반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공공예술은 최초 공공미술의 형태로 시작하게 된다. 대 공황 시기 실직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건물장식용 벽화나 조각 또는 포스터 및 공예품 제작 등을 주로 하여 미술가를 위한 공공사업의 색채가 뚜렷하였다.

1950년대에서 60대에는 건축 속의 미술을 시행하던 시기로 미적 가치를 재고하는 순수미술 위주의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1% 법(1951)이 시행되기도 한다. 1963년에는 미국에서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 개념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공원, 광장 등 공공 공간을 활용한 미술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고 공공장소의 맥락을 이해하고 삶의 밀접함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 조성의 방안으로 공공예술이 역할을 전환하게 되는 시기이다.

도시계획 속의 미술 또는 도시 재생을 위한 미술의 개념은 70~80년대에 본격화되는데, 공공 공간의 인간화를 기조로 공간과 공간, 공간과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술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고 공공장소의 대상도 가로시설,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80~90년대에 붐을 일으키는데 예술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민의 참여와 함께 다양한 예술 장르로의 확장이 두드러진다.

국내의 경우,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공공예술의 개념이 없던 시기인 기념조각의 시대로 공공예술의 태동기로 볼 수 있다. 역사 및 기록에 근거한 상징 조형물, 동상 등이 제작되었고 1972년에 1% 법을 제정하게 된다.

1980년대는 모더니즘 조각이 유행하던 시기로 기념조각 양상이 환경 조형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80년대 후반에 개최되었던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의 영향으로 모더니즘 조각이 대거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

10) 양현미 외 5인,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p.23.

는 것이 정설이다.

1990년대 공공예술의 성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기회 및 대중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미술 작품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과 시민 소통을 중시하는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1995년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의무화되게 된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보다 큰 규모의 기획과 사업 확장이 두드러진다. 공공예술의 다양화와 더불어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과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다 학제적 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과정 중심, 주민 참여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게 되면서 공적 영역 전반으로 관심이 확장된다. 이 시기부터는 일시성, 공동체, 지역성, 대중성, 장소성 등의 특징이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 또한 확대되어 규모의 공공예술이 시행되기에 이른다[표 3].

**[표 3] 공공예술의 국내외 흐름 요약 <출처 연구자정의>**

해외 주요 흐름
<p>1단계: 미술가를 위한 공공사업 (1930~195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공황 시기 실직예술가 일자리 창출의 일환</li> <li>- 건물장식용 벽화/ 조각, 포스터 공예품 제작</li> </ul>
<p>2단계: 건축 속의 미술(1950~196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물 미적 가치 제고</li> <li>- 순수미술 위주 작품</li> <li>- 프랑스 “1% 법”(1951)</li> <li>- 미국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3)</li> </ul>
<p>3단계: 공공장소 속의 미술(1960~197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 활용</li> <li>- 공공장소의 맥락, 삶의 밀접함,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전환</li> </ul>
<p>4단계: 도시계획 속의 미술-도시재생을 위한 미술 (1970~198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공간의 인간화, 네트워크화 목적</li> <li>- 미술가 참여 제도화, 가로시설,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 영역 확장</li> </ul>
<p>5단계: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1980~199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li> <li>- 주민의 참여, 다양한 장르로의 확장</li> </ul>

국내 주요 흐름	
1단계: 기념조각의 시대 (해방이후~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미술 개념 전무</li> <li>- 역사 및 기록, 상징 조형물, 동상 등 제작</li> <li>- 1972년 1% 법 제정</li> </ul>
2단계: 모더니즘 조각의 시대(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조각 -&gt; 환경 조형 변화</li> <li>- 1980 중반 모더니즘 조각 대거 등장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영향)</li> </ul>
3단계: 성장의 시대 양적성장과 성장통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기회 및 문화 향유권 증진</li> <li>-&gt; 공공 미술작품 대거 등장</li> <li>-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 시민 소통 중시 작품 본격적 등장</li> <li>- 1995년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의무화</li> </ul>
4단계: 도시적 기획시도와 공공미술의 확장 (200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미술의 다양화,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 관객과의 소통</li> <li>- 건축, 조경, 디자인, 등 타 장르 확장 및 협업</li> <li>- 과정 중심, 주민참여 중심, 공격 영역 전반으로 관심 확장</li> <li>- 일시성, 공동체, 지역성, 대중성, 장소성 등 특징 중심 작업</li> <li>- 정부, 지자체 관심 확대 -&gt; &lt;아트인시티&gt;, &lt;마을미술프로젝트&gt;, &lt;우리동네 미술&gt;, &lt;아르코 공공예술 사업&gt; 등 대규모화</li> </ul>

앞서 국내외 공공예술의 시대별 의미변화를 기준으로 공공예술의 특질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장식으로 본 미술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 개입으로서의 미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세분화하면 장식으로 본 미술에서 장소 속의 미술, 즉 기념조형물 또는 모뉴먼트로 대표되는 초기 공공예술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장소로서의 미술, 즉 건축물 미술 장식용, 새로운 장식미술 스타일의 중기 공공예술이다. 최근에는 장소 특정 미술, 뉴 장르 공공미술로 다양성이 확대되어 초기 공공미술의 개념에서 장르 불문의 공공예술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를 거치며 각각의 단계별 공공예술이 지니는 사상, 개념, 공공성의 출처, 우선권, 사회관계, 역할<sup>11)</sup> 등이 변화해 오고 있다[표 4].

11) 문화예술플랜비, <부산공공예술탐구>, 플랜비아카이브, 2021, p.10.

[표 4] 공공예술의 시대별 특징 요약 <출처: 연구자 정의>

구분	장식으로 본 미술		참여, 개입으로서의 미술
	장소 속의 미술 (기념조형물, 모뉴먼트)	장소로서의 미술(건축물 미술 장식용, 새로운 장식미술)	장소 특정 미술, 뉴 장르 공공 미술
사상	- 오브제 중심 - 미학적 관심	- 공간 만들기 중심 - 도시, 공간 디자인	- 공익, 사회 중심 - 사회적 이슈
개념	- 전통미술의 외출 (장식적)	- 새로운 장식	- 새 장르 공공미술 (비평)
공공성의 출처	- 공공장소 (물리적)	- 공공장소의 환경 (물리적 + 기능적)	- 공동 관심 (사회 정치적)
우선권	- 작가	- 작가(선) - 관객(후)	- 작가+관객
사회관계	- 폐쇄	- 개방	- 참여, 개입
역할	- 사회통제의 기능	- 도시공간의 질 향상, 문화적 영역 형성 - 대중 대상 미술향유의 기회 제공	- 공동체 의식 고취 - 장소 애착 강화 - 사회적 의견 표출 수단

위의 내용을 참고로 통시적인 공공예술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 번째, 공공 접근성을 들 수 있다. 미술관이나 화랑, 갤러리를 벗어나 접근성이 좋은 일반장소로 예술이 이동함으로써 대중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공적 절차와 공적자금의 조달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결합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교환, 수렴 과정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공익성으로 축약할 수 있다.

셋째는 지속성이다. 안전과 내구성이 확보된 강한 자재나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sup>12)</sup> 물론 이상의 특징들 외에도 개별 작품만의 예술성과 지역의

12) Ipid, pp.10~11.

특색을 대변하는 지역성<sup>13)</sup> 등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공공예술의 기능을 축약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심미적’ 기능이다. 둘째는 ‘공간 조절’ 기능이다. 특정 공공예술이 설치되면서 공공 공간이 특색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기능이다. 셋째는 실용적 기능이다. 랜드마크와 같이 공



[그림 1]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 사카고 -google.com

공예술이 기호화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기능들은 잘 보여주는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시카고 소재의 클라우드 게이트를 들 수 있다.

## 2). 문화마을의 공공예술 유형

공공예술품은 도시 공공 공간의 한 요소에 속하지만 다른 요소들과 다르게 특별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특정 지역의 지형이나 건축물 등의 랜드마크는 대규모로 식별이 용이한 대상을 의미한다. 반면 문화마을에 위치한 공공예술은 상대적 공간감으로 소규모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공예술작품을 중심으로 다른 경관 구성요소들을 배열하면 공간은 어떠한 하나의 독특한 이미지를 갖출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도시 전체의 이미지 형성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예술과 공공 공간의 관계는 로버트 어윈(Robert Irwin)이 분류한 범주<sup>15)</sup>를 참고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소 지배적 유형인데 이는 설치장소와 무관한 작품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공예술품으로 인해 새롭고 독창적인 성격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장소 의존적 유형으로 지역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예술품을 설치 또는 전시하여 공공예술품에 그 공간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유의 장소성을 자아내며 상징의 역할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은 장소 연계적 유형인데, 공간의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을 지향하며 도시민의 환경적 측면

을 강조한다. 이는 사용자들의 건강과 심미성에 관한 감정을 고취하는 생태성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이 있다 [표 5].

[표 5] 공공예술의 광역적 유형 요약 <출처 연구자 정의>

유형	특성
장소 지배적	설치 장소와 무관한 작품 내용,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공예술품으로 인해 새롭고 독창적인 성격의 공공 공간으로 재탄생
장소 의존적	지역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 -> 공공예술품에 그 공간의 사회, 문화적 맥락 포함 -> 장소성과 상징의 역할
장소 연계적	공간의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 목적 도시민의 환경적 측면 강조 -> 건강, 심미성 향상 -> 생태성

## 2-4. 문화마을 경관요소 디자인의 개념 정의

공공의 환경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사회의 규범과 관습, 의미, 가능성을 파악하고 경험하고 참여하고 상상하고 각인하고 기억하게 해주는 주된 방식 가운데 하나다.

디자이너들이 행동 유도성(affordance)을 이용하여 경관을 계획하고 그 특성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과 장소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애착의 종류와 질이 달라진다.<sup>16)</sup>

공간의 전체 구조와 상관없이 온도, 유연성, 색상, 밀도 등의 공간의 표면과 재료, 질감, 청각적 특성 등은 인간의 감각과 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공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한다. 디자이너가 훌륭한 환경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한 재료와 철저한 계획에 따라 만든 디테일을 볼 수 있다. 디테일은 공간의 규모 감각을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감각 운동 심상을 자극하고, 우리가 사는 장소와 그 안에 있는 물체에 대한 인지적 참여를 촉진해 감각적 깊이를 더한다.<sup>17)</sup>

체화된 수학이나 체화된 물리학으로 인해 생성되는 질서 패턴은 사람들이 장소나 건축물을 주변 환경과 구별할 때 이용한다. 이때 패턴은 가독성을 높이며 통일성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인간은 항상 반복 패턴을

13) 장은 외 2명, 빅데이터 감성분석에 따른 공행공공예술 디자인 요소 및 선호도 연구, 멀티미디어 학회, 2022,10, Vol.25, No.10, p.1500.

14) Ipid, p. 1500.

15) Robert Irwin, Being and Circumstance; Notes Toward a Conditional Art, The Lapis Press, 1985, pp.26-27.

16) 세라 W. 골드헤이건 지음, 윤제원 옮김, <공간혁명>, 다산북스, 2019, pp.310-311

17) Ipid, p.316

찾으려 한다.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려는 성향과 목표 지향적인 시각 특성의 감각인지 체계는 우선 재빠르게 전경과 배경을 분리한 뒤 마주한 대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패턴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sup>18)</sup> 이러한 원초적인 인간 본연의 시각과 함께 경관의 정의와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별로 변화한다. 19세기 말 독일의 문화역사 지리학자들이 경관을 외재적, 객관적 실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 영미권 문화 지리학자들을 주축으로 비 재현 지리 이론<sup>19)</sup>으로 경관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비판적 경관 연구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지나면서 경관의 개념은 진화하였다.<sup>20)</sup> 이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문화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로는 전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로, 벤치, 가로등, 자제 및 기타 경관 요소를 잘 설계하여 일관성 있게 배치한 가로경관은 문화마을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보도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도심지역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각적으로 가로의 연결성을 높여주고 토지 이용의 변화를 연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각각 단편적으로 설치되거나 공공 영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고 통합되

[표 6] 시대별 경관의 정의 및 관점 변화 요약 <출처 연구자 정의>

시기	주체 / 대표 인물	정의	관점
19C 말	독일 문화역사지리학자/ Otto Schlüter	물리적 요소들이 서로 연관 균질적 조화로 모인 하나의 영역 혹은 지역	외재적, 객관적 실재
20C (1963)	Carl Sauer	하나의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나 집단이 토양, 기후, 농업 등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 낸 지역 또는 영역	자연 -> 문화 문화경관
1970년대	Yi-Fu Tuan	물리적이고 객관적 실체가 아닌 주체적 주관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영향을 받는 것	인간 행위, 시각, 경험 동가-> 인간의 주체성 강조
이분법적 사고가 대치하는 시기 (외재적, 객관적 시각 vs 내재적, 주관적 시각)			
1980년대	Denis Cosgrove	용어 및 관념으로서 경관에 내재 되어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 권력을 얻어나야 함	보는 방식(Way of seeing) -> 신문화 지리학 -> 특정 계급이 상상하는 자연과의 관계가 부여한 의미가 변형
1990년대	Peter Jackson Gillian Rose	경관 속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논할 수 있는 대상	숨겨진 질적 차원 해체
2000년 이후	영미권 문화지리학	비 재현 지리 이론	비판적 경관 연구

**1). 문화마을 경관 디자인의 중요성과 요소**

- 18) 문화예술플랜비, <부산공공예술탐구>, 플랜비아카이브, 2021, pp.10~11
- 19) 비재현적 방법론은 언어, 기호 또는 이미지와 같은 전통적인 표현적 프레임워크에 의존하지 않는 연구 및 분석 접근 방식을 말한다. 대신, 비재현적 방법론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감각 시각, 신체 움직임 및 공간적 관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험의 구체화되고 정서적인 차원을 탐구한다.
- 20) 정은혜, 경관을 통해 살펴본 문화역사관광지로서의 블라디보스토크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 2019, Vol.22, No.2 p.65

어야 한다.

가로경관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열쇠는 도시설계 요소 등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도심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sup>21)</sup>

이러한 문화마을의 경관디자인의 중요성을 지켜나가는 몇몇 원칙들과 이를 이루는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체계화된 구조 만들기이다. 가로와 블록의 패턴, 도로의 위계질서, 오픈 스페이스, 토지 이용 및 밀도, 공간적 정의 등을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21) 사이 포미어 지음, 장지인 외 2인 옮김, <활기찬 도심 만들기>, 대가, 2018, p.113.

있다. 둘째, 독특한 정체성을 조성하는 것이다. 역사적 건축물이나, 특별한 지리적 특성, 랜드마크, 가로경관 처리, 공공예술, 공공 공간 등을 독특하게 구성하여 특정 장소만의 정체성을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장소들이 다양성과 흥미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시각적, 기능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건축물, 가로경관, 표지판 등의 연계를 통한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각적, 기능적 정합을 이룰 수 있다.

넷째, 편리성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행 이동과 주차, 대중교통 접근성 등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기후에 대한 대비, 교통, 물리적 안전,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sup>22)</sup>

## 2). 문화마을의 공공예술과 경관요소 디자인의 관계

조각, 분수, 건물 벽면 그래픽 등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도심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예술적 특성을 지향하는 것도 도심 정체성 확보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신중하게 설계가 될 경우, 가로수의 쇠 받침대(grate), 벤치, 맨홀 커버, 울타리 및 표지판 등의 실용적인 요소마저도 주목을 끌고 감탄을 자아내는 예술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공공예술은 도심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공공예술은 특정 장소를 유머스럽게 하기도 하고 역사적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도시 경험에 의미를 더해준다. 도심활성화를 위해 예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광장, 공원, 보행로와 같은 공공공간의 전체 디자인에 잘 통합시켜야 한다.<sup>23)</sup>

### 2-5. 장소 정체성의 개념

우리는 공간을 오감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공간을 규정해 주는 사물과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 경험적 공간에 대해 논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공간은 정의와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하나의 장소로 변모해 간다. 이런 공간개념에 있어 인간주의 관점에서 실존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변화는 경험의 주체로서 인간의 삶과 경험, 현실적 체험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이로써 절대공간과 상대공간으로 그 개념이

다양화되는데, 공간은 물리, 과학, 수학적 측면의 개념을 포함한 절대적 공간개념에 가깝다. 반면 인간의 삶과 경험, 체험, 기억, 가치 등의 유·무형 상호작용에 의한 상대적, 관념적, 관계적인 의미로 여겨지는 순간 '공간'은 실존주의적 개념으로 시간과 함께 '장소'의 의미를 띄게 된다. 공간의 장소화에 대한 개념은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1927년 출간된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공간과 시간이 단순히 세상의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공간과 시간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미 특정 상황에 "내던져져" 있으며, 이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경험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자연을 연장된 포괄적 총체성, 지역적 상황에 따라 특정한 정체성을 갖는 '장소'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 정체성 혹은 '혼'은 하이데거가 땅과 하늘을 특징 짓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구분을 그 출발점으로서 취해야 하는 일종의 구체적인, '질적인' 용어에 의해 기술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연적인 장소의 주요 지명으로서 보존되어야 하는 풍경에 대해 실존적으로 관계된 이해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풍경 내에 트리클의 '나무'와 같은 자연적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하위 장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물들 속에서 자연적인 환경의 의미는 응축된다.<sup>24)</sup>

상기 개념들을 종합하여 장소의 정체성에 관한 개념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현상과 인공적인 현상의 구분을 가지고 취해진다. 두 번째 단계는 땅-하늘(가로-세로)과 안밖의 범주로 나타내진다. 이러한 범주는 공간을 함축하고, 그래서 '공간'은 일차적으로 수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존적 차원으로서 다시 도입된다. 궁극적이고 특수하게 중요한<sup>25)</sup> 단계는 '성격'의 개념을 가지고 취해진다.<sup>26)</sup> 성격은 사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의 탐구에게 우리의 일상적 삶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 현상의 기초를 제공한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우리는 '장소의 혼(genius loci)'을 충분히 파악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존적 공간에서 장소성(Plac-eness)과 장소감(Sense of Place)이라는

22) Ipid, pp.10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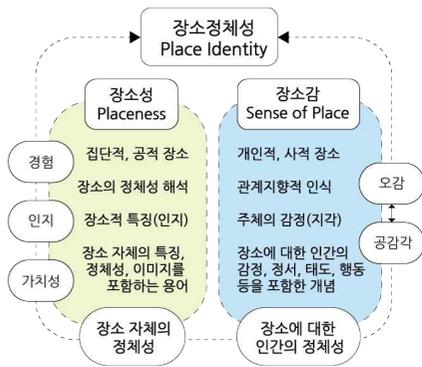
23) Ipid, p.113

24) 크리스티안 노르베르크 슈츠, 박유정 옮김, 장소의 현상, 아키투어스, 2019, pp98-99.

25) 여기서 '실존적 공간'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26)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London and New York: 1971, pp.30~34.

개념과 장소정체성(또는 장소의 혼, Place Identity)의 개념을 종합해 볼 수 있는데, 장소성은 집단적, 공적 장소의 개념으로 쓰여진다. 장소 자체의 특징 즉 장소 자체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장소감은 그 장소에서 느낄 수 있는 각 계층 간 주관적이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융합되어 장소정체성을 형성한다 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장소감, 장소성, 장소정체성의 상관도  
〈출처: 연구자 정의〉

### 3.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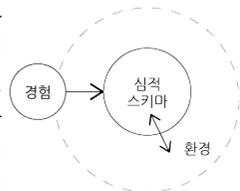
분석에 들어가기 전, 각기 다른 미의식과 문화를 가진 3국의 사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함에 있어 피험자 선정은 객관적 분석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여건상 3국 가운데 중국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분석 결과가 피험자들의 비의식적 인지과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연유로 분석 전, 비의식적 인지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됨이 적절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감정적이며 정신적인 영향은 주로 시지각의 결과이므로 경관은 기능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들이 지각하는 공간은 거리와 깊이를 지각하는 것이며 배경과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착시현상이나 심리적 항상성에 의해 지각은 변화하게 된다. 또한, 관찰하는 위치 또는 거리 및 시지각에 의한 경험에 따라서 무수히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sup>27)</sup> 마크존슨(Mark Johnson)은 유기체-환경 상호작용 패턴<sup>28)</sup>에 대한 이론을 피력하면서 비의식적 인지과정에

2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1998. p.3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프라임(점화, Prime) 또는 프라이밍(Priming)은 사람이 비의식적으로 지각하는 환경적 자극, 기억이나 정서 다양한 인지적 연상을 활성화해 이후의 사고나 느낌, 반응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sup>29)</sup> 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이 물리적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비의식적으로라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련한 요소를 몇 가지는 떠올려야만 당시 기억을 소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장소와 관련된 경험이 우리의 자의식과 정체성 인식의 틀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건축 환경을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 낸다.<sup>30)</sup> 보울딩(Boulding)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행동은 대부분 이미지에 의존하여 행하여진다. 체험을 통한 갖가지 정보들은 기억되고, 그러한 기억들을 연관지어 이미지로 시스템화하게 되고 개개인의 행동에 그러한 이미지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sup>31)</sup>



[그림 3] 비의식적 인지과정  
〈출처: 연구자 정의〉

#### 3-1. 분석 방법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암울한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역사문화거리, 즉, 부산 감천문화마을, 청두(成都)시 관자이샹즈(寬窄巷子), 카가와현 나오시마섬(瀬川郡直島町) 일대의 공공예술품 가운데 벽체를 활용한 사례와 설치 조형물 사례를 중심으로 자극물을 선별하였다. 각 공공예술품이 설치된 곳의 주변 경관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이미지를 자극물로 선별하고 각 사례별 역사 및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는 장소성과 각 공공예술을 1차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1차 분석을 기초로 하여 2차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적 분석의 틀은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문화적 재생 전략과 공공예술의 기능, 경관 요소의 개념들을 상관 분석한 후(그림 4), 경관의 상태를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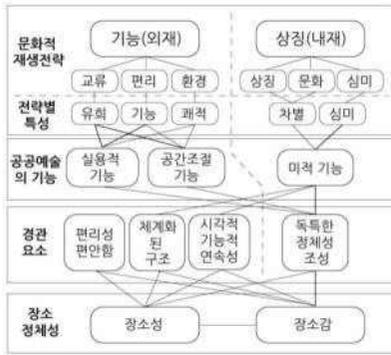
28) 세라 W. 골드헤이건 지음, 윤재원 옮김, 〈공간혁명〉, 다산북스, 2019, p.117

29) Ipid, p.126

30) Ipid, p.155

31) Boulding K, E. National Image and International Syste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59. pp.5~6.

할 수 있는 경관 형용사 19쌍을 바탕으로 한 분석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표 7].



[그림 4] 공공예술을 포함한 문화마을 경관분석을 위한 계통도<출처: 연구자 정의>

### 3-2. 1차 분석

분석 사례로 설정된 3국의 역사문화거리는 공공예술을 이용한 문화적 재생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각 국 개별 특성이 부각되는 지역을 선별하였다.

3곳은 각각 상향식, 중재식, 하향식의 접근 방식으로 문화적 재생을 이루었으며, 재생 기간도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곳도 있다. 각각의 사례들은 장소연계적, 의존적, 지배적 유형의 대표성을 띠는 사례를 선별하였다.

사례 1의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2010년 이전부터 최초 지역민이 주축이 되어 마을 환경개선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다가 2010년 5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와 지자체의 협업을 진행한 상향식 재생 사업 사례이다. 한국전쟁 이후 태극도라는 종교의 신자들이 정착한 곳으로 감천 산기슭에 마을을 형성하고 지금껏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낙후된 환경을 골목길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테마로 재생하기 위해 공공예술을 활용하였다. 그중 지역민이 참여한 커뮤니티 아트를 포함한 지역예술가들의 설치작품들이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표 10].

사례 2로 청두의 판자이상은 중국 정부가 1980년대 역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간 대대적인 하향식 정비사업을 펼친 곳이다. 20세기 초 청나라 멸망 시기의 혼란했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곳으로 잔존해 있는

[표 7] 공공예술을 포함한 문화마을 경관 분석틀

<출처: 연구자 정의>

문화 재생 전략	경관 요소	특징	상태서술 (리커트 5점 척도)						
			정돈된	1	2	3	4	5	어수선한
기능	질서성	정돈된	1	2	3	4	5	어수선한	
		안정적인	1	2	3	4	5	불안정한	
	체계성	편안한	1	2	3	4	5	불안한	
		안전한	1	2	3	4	5	위험한	
	복합성	복잡한	1	2	3	4	5	심플한	
		다양한	1	2	3	4	5	획일적인	
	연속성	조화로운	1	2	3	4	5	부조화로운	
		세련된	1	2	3	4	5	조잡한	
		친근한	1	2	3	4	5	낯선	
		경감있는	1	2	3	4	5	삭막한	
	편리성	자연적인	1	2	3	4	5	인공적인	
		개발성	넓은	1	2	3	4	5	좁은
상징	정체성	지역색 있는	1	2	3	4	5	지역색 없는	
		상징적인	1	2	3	4	5	상징적이지 않은	
	독창성	아름다운	1	2	3	4	5	추한	
		멋진	1	2	3	4	5	멋없는	
	개성	인상적인	1	2	3	4	5	평범한	
		독특한	1	2	3	4	5	일반적인	

옛 건물을 보존함과 동시에 청두시의 관광 및 상업 중심의 현대화된 공간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 정비와 함께 공공예술 설치가 함께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조화로운 장소성을 갖추고 있다[표 11].

사례 3의 카가와현 나오시마 섬 일대는 기업가와 건축가가 주축이 되어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끈 중재식 재생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0년 역사의 마을은 근대 제련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대규모 화재로 가옥들이 소실, 폐허화 되어 지역민이 떠나고 고령화되었다.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역사를 보존키 위해 기업가 후쿠다케 소이치로가 구상하고 안도 다다오와 같은 건축가가 뜻을 같이 하면서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를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장기간의 사업 진행과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공공예술작품들이 존재하기에 있던 섬마을을 유명관

광지로 재생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

[표 10] 사례 1- 부산광역시 감천 문화마을

<이미지- <https://www.gamcheon.or.kr>>

#1	부산광역시 감천 문화 마을	
개요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2동 일원
	재생 기간	2010년 5월~ 10월 (이후 현재까지 순차적 보완 작업)
주최/참여	지역민	주최/ 사하구청, 전문가 참여
	주최/참여	지역민 주최/ 사하구청, 전문가 참여
장소성	역사 및 지역성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 가운데 태극도 신자들의 정착촌. 정착민들이 직접 마을을 일구어 태극 마을이라고 불러 지기도 함. 산허리에 계단식으로 판잣집을 지은 것이 시초. 현재 판잣집들은 개량을 거쳐 골목마다 형형색색의 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섬. 과거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소외지역. 주변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남포동 등 위치. 감천동과 아이동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서의 차량통행 빈번
	분류	내용
공공예술분석	마을 전경	<p>“골목길 프로젝트”는 골목 곳곳에 마을주민이 지역 작가들과 함께 참여한 작품을 설치. “공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주제에 맞게 경사지고 굽어진 지형에 10여 점의 조형물들 설치.</p>  
	벽체 활용 사례	<p>감천2동 문화마을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작업의 일환-&gt; 지역 이미지 통일화 작업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의 목적으로 심벌마크 로고 타입 개발 벽면 부조형식 설치, 환경개선 목적의 벽화 다수/ 장소 연계적 공공예술 유형</p>  
	가로 변조형	<p>“테마가 있는 빈집 프로젝트”, “영화의 집” 등 곳곳에 테마 관련 조형물 설치,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대표적인 포토라인/ 장소 연계적 공공예술 유형</p>  

[표 11] 사례 2- 청두(成都) 시 관자이샹즈(寬窄巷子) 역사거리 <이미지- google.com>

#2	청두(成都) 시 관자이샹즈(寬窄巷子) 역사거리	
개요	지역	청두시 관자이샹즈 일원
	재생 기간	2003년~ 2008년 6월(현재까지 상업시설 증설 중)
주최/참여	지역민	주최/ 청두시 정부주최/ 지역민, 전문가 참여
	주최/참여	청두시 정부주최/ 지역민, 전문가 참여
장소성	역사 및 지역성	17C~20C 청나라 말기까지의 전통을 담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 중국당국으로부터 역사 보호구역으로 지정. 20C 초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족과 만주족들의 삶과 애환을 담고 있음. 청나라 옛 건물 일부 잔재, 대부분 거리 리모델링. 청두시 도시 중심부 청양구에 위치. 3개의 주요 테마 거리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체험을 목표로 상업 및 관광산업이 발달함.
	분류	내용
공공예술분석	마을 전경	<p>관자이샹즈는 “넓고 좁은 골목”이라는 뜻. 3개의 주 골목길에 벽체를 활용한 공공예술과 상업시설 및 사진촬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짐</p> 
	벽체 활용 사례	<p>관자이샹즈의 과거 현재를 비교하는 사진이나 부조 형태의 예술품이 벽체에 전시됨. 주로 이 지역의 과거 생활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있는 회상하게 하는 촉매역할 / 장소 의존적 유형의 공공예술</p> 
	가로 변조형	<p>옛 건물이 남아 있거나 옛 건축 양식으로 재건된 건물 내외부에 전통적 특징의 조형물 다수 설치. 골목마다 경극이나 청나라 시대 코스튬 퍼포먼스 다수 존재. / 장소 의존적 유형의 공공예술</p> 

[표 12] 사례 3- 카가와현 카가와군 나오시마초 (香川県 直島町) <이미자- <https://naoshima.net>>

#3 카가와현 카가와군 나오시마초 (香川県直島町)			
개요	지역	카가와현 나오시마 섬 일원	
	재생 기간	1997년~ 현재 (2010년 기준 7개 아트 프로젝트 완료)	
주최/참여	기업가 주최/ 지자체, 유명건축가, 예술가, 지역민 참여		
장소성	역사 및 지역성	200년 역사의 민가, 성터, 신사가 존재하는 마을. 화재로 상당수 가옥들 손실, 근현대 제련소 운영으로 인한 오염, 도시화, 고령화로 빈집 다수 발생. 빈집의 용도 공문화-> 소실되고 폐허가 된 일본 전통가옥 활용 예술 작품화한 아트하우스프로젝트로 마을전체 작품화. 옛 건물구조 이용한 예술로 공간 재창조. 빛, LED조명, 자연, 유리계단을 장식적, 상징적 요소로 활용. 감성적, 미니멀 공간 아트하우스에서는 삶과 죽음, 신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 표현. 와비/사비외 감상성. 간결미와 장식성 혼재. <sup>32)</sup>	
		분류	내용
공공예술분석	마을 전경	한적하고 좁은 길과 담장이 주는 일본식 정서 유지. 고요한 정서인 와비 예스런 운치의 사비의 흔재. 감각적인 재료구성과 평면적 재료 이음법. 애뜻한 경감의 감상성 특징	
	벽체 활용 사례	주택 및 치과를 겸한 건물 전체 골라주 작품-> 무질서한 장식적 방법으로 빈티지의 미학 표현. 일반 가정집 벽체에 미니멀 벽화. 그 외 옛 가옥의 지붕과 나무기둥, 회벽 등 건물의 모든 요소를 작품의 일부로 사용-> 일본적인 미니멀리즘과 상징성 표현.	
	가로변 조형물	베네세 하우스 외부 조각공원 및 해안가 조각들-> 나오시마 자연경관과의 조화 강조. 공공예술의 공공성 강조한 대표적인 포토리인/장소 지배적 유형의 공공예술	

### 3-3. 2차 분석

2차 정량적 분석에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째는 3가지 사례의 경관 요소와 관련한 분석의 틀로부터 추출된 경관 상태 형용사를 활용한 19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평균하여 각 사례 간 차별성을 분석한다. 두 번째는 공공예술의 상징적 기능인 독창성을 세분화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히스토그램 화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다.

피험자 그룹은 문화마을의 주된 가망 방문 계층인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 20대~30대 이르는 성인 남녀 115명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의 국적을 중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2023년 2월 중국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문화관광표준화사업 행정조치"<sup>33)</sup>로 인한 역사 문화 재생에 대한 체계적 발전과 비전이 시사하는 바가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으로 다양한 문화재 생사업이 향후 펼쳐질 것이며 16억이라는 거대시장의 활성화가 가져다줄 연쇄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험자의 거주지역은 동북 3성의 대도시로 한정하였다. 지역별로 베이징, 칭따오, 상하이, 광저우 순으로 거주자 분포가 이루어졌으며, 남녀 비율은 각각 남 65명, 여 50명으로 구성되었다. 매개변수를 특정 연령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2023년 5월 10일 실시하였다.

결측값 1과 최소, 최대값을 제외한 전체 경관 요소의 평균은 2.91에서 3.47 사이에 분산 분포하였으며 전체적인 장소감에 있어 긍정보다는 미세하게 부정적 정규분포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특히 체계성과 편리성은 독창성과 연속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방사형 다이어그램의 경우 각 경관 요소의 값이 중앙으로 집중될수록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가 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체계성"의 경우 평균의 표준 편차가 0.002 이하로 3가지 사례 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례1 > 사례2 > 사례3의 결과를 보였다. "연속성"의 경우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사례 2> 사례 1> 사례 3의 순으로 긍정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편리성의 경우 사례 3에 대한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의 평가를 보였고 사례 3> 사례 2> 사례1 순의 결과를 보였다.

32) <https://naoshima.net>, 2023, 05

33) 중국문화관광부, [https://zwgk.mct.gov.cn/zfxxgkml/zcfg/gfxwj/202302/t20230224\\_99321.html](https://zwgk.mct.gov.cn/zfxxgkml/zcfg/gfxwj/202302/t20230224_99321.html), 2023.06

독창성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근소하게 사례 3> 사례 1> 사례 2의 결과치를 나타냈[대표 13].

사례별 독창성에 관한 평균 기술 통계분석 결과, 정 체성 가운데 '지역색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사례1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사례 3, 사례 2의 순이다. '상징적 안'이라는 상태서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사례 2> 사례 1> 사례 3 순으로 분석되었다. 심미성에 있어 먼저 '아름다운'과 관련한 상태서술에서는 사례 2> 사례 3> 사례 1 순으로, '멋잔'은 사례 3> 사례 1> 사례 2>의 결과를 보였다. 개성과 관련한 상태서술 가운데 '인상적인'은 사례 2> 사례 1> 사례 3의 결과를 '독특한'과 관련해서는 사례 3> 사례 1> 사례 2 순으로 인지하는 결과를 보였다[표 14].

### 3-4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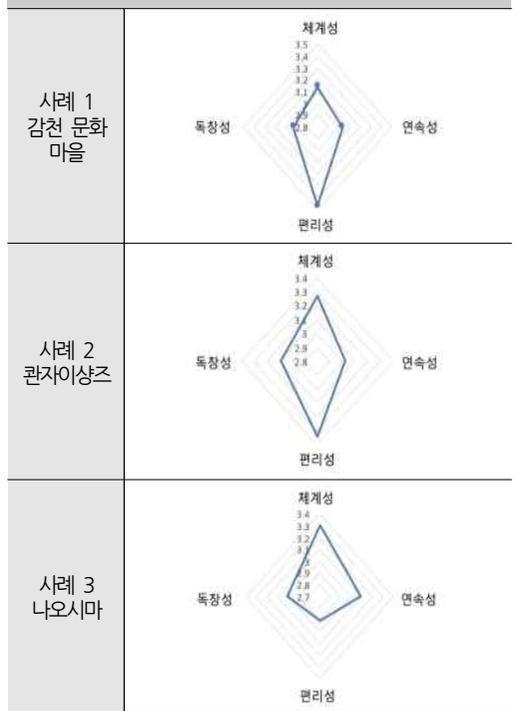
앞선 분석내용을 종합해보면, 먼저 1차 정성적 분석에서 사례별 공공예술의 유형이 각각 혼재되어 있으나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심미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지역민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사례 1 감천 문화마을은 장소 연계적 성격이 강한 유형이었다. 사례 2 관자이상즈는 공공예술품이 주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장소 의존적 유형이었다. 사례 3 나오시마의 경우는 설치장소와 무관한 작품 내용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장소 지배적인 성향이 강하다. 각 사례들은 매개, 체험, 상징적 공유가치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가지 사례 모두 대체적으로 전통적 방식인 장식적인 공공예술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사례 1 감천 문화마을의 경우 지역민이 직접 참여한 커뮤니티 아트가 활용된 점에서 참여와 개입의 사회관계가 나머지 두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 2의 경우는 특별히 예술가들이 골목 곳곳에서 퍼포먼스를 보이는 뉴 장르 공공예술의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사례 3의 나오시마는 섬 일대를 미술관으로 특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려는 시도가 전통적 방식과 차별화되는 부분이었다.

[표 13] 사례별 경관요소 평균 기술통계와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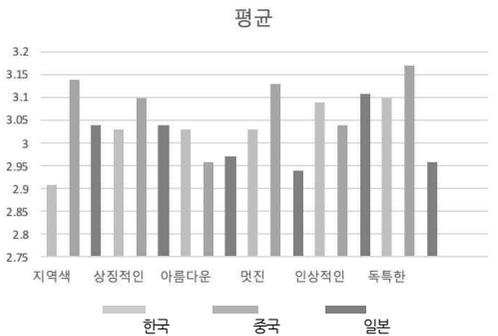
경관요소 평균 기술 통계 ( n 115 / 결측 값 1)					
요소	사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체계성	한	3.14	0.904	1.33	4.83
	중	3.27	0.902	1.17	4.83
	일	3.31	0.904	1.33	4.83
연속성	한	3.03	0.947	1	4.75
	중	3.02	0.981	1	4.5
	일	3.09	0.984	1.25	4.75
편리성	한	3.47	0.982	1	5
	중	3.34	0.915	1	5
	일	2.91	0.621	1.67	4.33
독창성	한	3.03	0.956	1.17	4.67
	중	3.09	0.983	1.17	4.83
	일	3.01	0.943	1	4.67

기술통계에 따른 방식형 다이어그램



[표 14] 사례별 독창성 평균 기술통계 및 히스토그램

독창성		평균 기술 통계 (n 115 / 결측 값 1)					
독창성	사례	평균	표준오차	신뢰구간		표준편차	
				하한계	상한계		
정체성	지역색	한	2.91	0.0977	2.72	3.11	1.05
		중	3.14	0.1104	2.92	3.36	1.18
		일	3.04	0.1051	2.84	3.25	1.13
상징적인	한	3.03	0.1162	2.8	3.26	1.25	
	중	3.1	0.1086	2.89	3.32	1.17	
	일	3.04	0.1044	2.84	3.25	1.12	
심미성	아름다운	한	3.03	0.109	2.82	3.25	1.17
		중	2.96	0.0976	2.76	3.15	1.05
		일	2.97	0.1138	2.74	3.19	1.22
멋진	한	3.03	0.0968	2.83	3.22	1.04	
	중	3.13	0.1087	2.92	3.35	1.17	
	일	2.94	0.1057	2.73	3.15	1.13	
개성	인상적인	한	3.09	0.1038	2.88	3.29	1.11
		중	3.04	0.108	2.83	3.26	1.16
		일	3.11	0.1096	2.9	3.33	1.18
독특한	한	3.1	0.1213	2.86	3.34	1.3	
	중	3.17	0.1154	2.95	3.4	1.24	
	일	2.96	0.0968	2.76	3.15	1.04	



사례별 피험자들이 느끼는 장소감은 평균적으로 중앙값이 3 이상의 정규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부정적 장소감을 내포하는 결과로 보인다. 3곳 사례의 평균값 차이는 유의미하게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예술품이 포함된 경관 요소에 대한 평균 기술 통계의 경우 “체계성”과 관련된 질서, 안전, 복잡함과 관련된 상태서술에 있어 사례 1의ダイナ믹함이 다소 피험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연속성”과 관련된 조화로우거나 친근함과 관련된 상태서술의 경우, 애초 지역 정비사업과 함께 형성된 사례 2가 긍정의 결과로, “편리성”과 관련된 자연스러움과 개방

감의 경우 섬이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주는 자연스러움과 개방감이 양호하였던 사례 3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의 장소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창성에 관한 세부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피험자들의 비의식적 인지과정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색”과 관련하여 익숙하지 않은 장소성에 긍정의 평균값을 나타낸 점이나, “멋진”과 관련한 상태서술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술 체험으로 인한 인지과정의 결과로 다른 지역을 긍정 평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개성”과 관련한 상태서술에서 “독특한” 또한 다른 장소성에서 오는 생소함의 결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긍정적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문화마을에서 공공예술과 경관요소 디자인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공공예술 개념 및 경관 개념의 진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공공예술은 특정 계층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 나아가 지역성과 예술성을 담고 있어야 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공예술품이 참여 및 개입으로서 진화하고 있는 경합성과 일치한다. 또한 2000년 이후 지리학에서 논하고 있는 비판적 경관 개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특정 장소의 문화적 재생의 일환으로 문화마을의 형성은 그 나름의 공유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에 의해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공공 공간 디자인에 공공예술이 매개적 가치, 상징적 가치, 체험적 가치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예술로 인한 이러한 가치 형성은 특정 장소를 지배, 연계, 의존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화 재생 전략은 크게 기능적 부분과 상징적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장소 정체성과의 관계를 따져볼 때 기능적 부분은 외재적, 객관적 상태에 가까우며 장소성과 연관이 있다. 상징적 부분은 내재적, 주관적 상태에 가까우며 장소감과의 상관성이 높다. 이러한 장소성과 장소감은 장소 정체성을 이루는 주요 특징이며 균형 있는 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례 분석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해본다면, 먼저, 한·중·일 3국

의 사례를 토대로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공공공간디자인이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둘째, 문화마을과 공공예술 그리고 경관의 상관성을 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특정 지역의 특정 계층 피험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보일 수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한 비의식적 인지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안점은 사례별 현재 공공예술 작품들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공공예술의 객관적 기능 또는 경관이 피험자들이 느끼는 장소감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차후 문화적 지역개발의 경관요소 디자인 시 그에 맞는 장소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으로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먼저, 한정된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더욱 일반화되기 위해선 3국의 고른 피험자들의 상관분석이 논거를 더욱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을 밝힌다. 두 번째는 각 사례별 비판적 분석이 상당 부분 자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낙후되었던 지역이 문화적 재생이 되면서 발생하는 거주민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등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문제라든가, 이론적 고찰에서 확인되었던 공공예술의 특성 가운데 지역성과 상업성 대립 또는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창출하려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으로 인한 공공예술의 독창성 부재, 또는 획일성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은 점 등이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문화예술플랜비, [부산공공예술탐구], 플랜비아카데미, 2021.
2. 사이 포미어 지음, 장지인 외 2인 옮김, [활기찬 도심 만들기], 대가, 2018.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1998.
4. 세라 W. 골드헤이건 지음, 윤제원 옮김, [공간혁명], 다산북스, 2019.
5. 양현미 외 5인,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공공미술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2013.
7. 크리스티안 노르베르크 솔츠, 박유정 옮김, [장소의 현상], 아카트윈스, 2019.
8. Boulding K, E. National Image and International Syste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59.
9.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London and New York: 1971.
10. Robert Irwin, Being and Circumstance; Notes Toward a Conditional Art, The Lapis Press, 1985.
10. 김미영, 문정민, 도시 재생 관점에서 문화의 거리 공간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0. 10, Vol.19, No.6.
11. 우커스 외 2명, 역사 문화거리 공공디자인의 공유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8, Vol.16, No.5.
12. 이학모, 문화적 재생을 위한 장소 만들기 연구, 인문 사회과학 연구, 2022, 5, Vol.32, No.5.
13. 장온 외 2명, 빅데이터 감성분석에 따른 공학 공공예술 디자인 요소 및 선호도 연구, 멀티미디어 학회, 2022,10, Vol.25, No.10.
14. 정은혜, 경관을 통해 살펴본 문화역사관광 지로서의 블라디보스토크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 2019, 8, Vol.22, No.2.
15. 국립국어학원 참조(<https://opendict.korea.go.kr/main>)
16. <https://naoshima.net/>
17. <https://terms.naver.com>
18. <https://www.gamcheon.or.kr>
19. <https://www.google.com>